

‘생명력 있는 철학’의 출발과 지향

「현대철학과 해석」 「해석학은 무엇인가」를 읽고

김의수

전북대 교수·철학과

한국에 현상학과 더불어 해석학이 소개된 것은 이미 30여년 전이다. 그 이후 해석학의 전문 연구자들이 많이 배출되었으며, 그에 따라 해석학 관련 서적 및 논문들도 많이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현상학회 창립된 지 20년을 넘고, 1983년 이래 학회논문집과 회원들의 개별 저서들이 쏟아져 나와서 널리 보급된 것에 비하면 해석학 분야는 그 성과와 보급이 미미한 정도에 머물고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그 직접적인 계기는 한국해석학회의 창립이다. 지난해 하반기에 창립된 해석학회는 출범과 더불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그 적극성과 부지런함에 주위의 사람들이 놀라움을 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대한 물적 증거(?)로 나타난 것이 바로 이 두 권의 책이다.

폭넓은 주제와 분명한 논지의 글모음

「현대철학과 해석 1」(지평문화사)은 해석학연구회의 이름으로, 그리고 ‘해석학연구 1’ 「해석학은 무엇인가」(지평문화사)는 한국해석학회의 이름으로 출간되었으며, 편집위원은 동일하다. 그러나 두 권의 책은 그 발간 주제와 방향에 있어서 뚜렷이 구별된다. 전자는 한양대 이정복교수가 중심이 되어 전문성과 대중성의 결합을 시도하는 해석학 전문 서적이다. 1년에 1~2회 발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책은 “철학, 문학, 예술, 사회학, 신학을 이어주는 하나의 비평서”라고 자기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후자는 해석학회의 첫번째 논문집으로 전문적인 학술논문들의 모음이며, 따라서 일반 교양인들을 독자로 생각하는 전자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이 책도 연 2회의 발간을 목표로 하고 있고, 해석학회의 창립 취지에 따라 철학 분야를 넘어서 다양한 전문분야를 포괄한다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 두 권의 책이 각각의 목표를 상당한 정도로 달성해 나간다면, 해석학의 전문연구와 대중화에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철학과 해석 1」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전반부(2/3)는 해석학 논문(및 준논문)들이고, 마지막 1/3은 문헌 총목록이다. 책의 부제-존재해석과 신학, 예술-가 논문들의 내용을 암시해 주고 있다. 현대 해석학의 주요 경향들 중 하나에 속하는 하이데거와 가다머의 철학적 해석학이 주로 소개되고 있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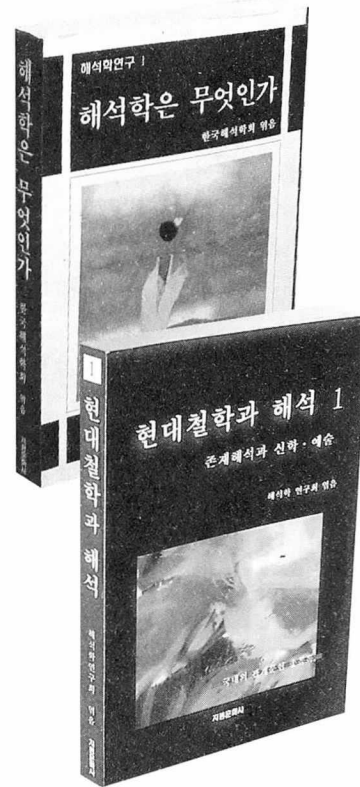
**해석학이 소개된 지 3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 성과와 보급은
미미한 상태였다. 최근 연구자들의
학회활동에 대한 두 권의 물적 증거는
달라진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현대철학과 해석1」이 전문성과
대중성의 결합을 시도했다면
「해석학은 무엇인가」는 다양한
전문분야를 포괄하는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보인다.**

며, 리코르의 해석학에 대한 논문도 한 편 포함되어 있다. 신학 분야에서는 현대 신학적 해석학의 동향이 소개되고 있고, 예술철학에 대한 글이 세 편(1편은 번역) 들어 있다.

여기에는 국내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젊은 학자들이 명쾌한 논리와 문장으로 쓴 논문들과 석사들이 비교적 적은 분량으로 쓴 준논문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주제의 폭이 넓고, 논지가 분명한 글들이므로 많은 독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하면서 두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가장 첫 부분에 실린 ‘철학적 해석학 서설’은 책의 편집구조상 부적절한 글이다. 이 책이 지향하는 방향에 비추어 볼 때, 첫번째 책의 서두에 실는 글이라면 당연히 넓은 의미의 철학적 해석학을 소개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글은 가다머의 해석학에 국한된다. 현대 철학에서 다루는 해석학 이론들은 고전적 해석학(딜타이, 베티), 철학적 해석학(하이데거, 가다머), 비판적 해석학(아펠, 하버마스, 잔트클러), 현상학적 해석학(리코르) 등의 경향으로 나뉜다는 사실이 이 부분에서 소개했어야 한다.

둘째, 이 책이 제공하는 중요한 서비스로서의 해석학 관련 문헌 총목록은 전문 연구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교양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중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점검되지 않은 채 서둘러 편집됨으로써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국내 문헌목록에서 이름과 연도 등에 많은 오자가 발견되고, 누락된 문헌도 많다. 뿐만 아니라 외국 서적에서 복사한 문헌목록을 그 출처도 밝히지 않은 채로 실어



놓았다. 그리고 국내의 현상학 관련 문헌은 추후에 보다 세밀한 분류작업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다수의 해석학자와 논점들 다뤄

「해석학은 무엇인가」는 해석학과 현상학(I), 이해와 이성(II), 사회문화의 해석학적 지평(III), 현대해석학의 논점(IV)이라는 4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이데거, 가다머, 하버마스, 리코르, 데리다 등 다수의 해석학자와 논점들이 다루어지고 있으며, 각기 그 분야를 유럽에서 전공하고 돌아온 젊은 학자들이 주 필진을 이루고 있다. 그들의 글은 논지가 분명하고, 문장 또한 명쾌하다. 그러므로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인물과 주제들에 관하여 독자들은 훌륭한 안내를 받게 될 것이다. 이 책은 현상학과 더불어 해석학 분야에서 한국의 학자층이 두텁게 형성되어 있으며, 그 수준 또한 세계무대를 향할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 책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이정복 해석학회 회장의 글들이다. 두 권의 책에 공히 이회장의 서문과 논문이 각각 한 편씩 실려 있다. 서문들에서 이회장은 서양철학이 우리에게 수용되는 과정에서 ‘관념화’되고 ‘추상화’되었으며, 이는 ‘한국철학의 순수성마저 잃게’ 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주장한다.

“서양의 현실에 대한 뜨거운 많은 이야기는 그대로 수용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소박한 자리에서 ‘해석’되며 ‘비판’되면서 나의 것으로 현전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해석학회는 “오늘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며, 삶이라는 끈끈함을 철학적 해명의 지평으로 펴 내보이려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주장과 포부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를 갖게 하는 내용이다.

이정복회장은 자신의 논문에서 적극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 그는 서양철학적 사고로 해명되지 않는 동양고유의, 한국고유의 근원경험을 강력하게 부각시킨다. 동양적 현실의 서양철학적 해명이 아니라, 근원적 삶의 현실을 보다 적합하게 드러내주는 동양적 경험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간에 이와 유사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대부분 서양철학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발견된 것이어서 거의 설득력을 갖기 어려웠던 데 비하여, 이교수의 경우 서양철학에 정통한 전공자(해석학회 회장)로서 동양사상을 깊이 연구하고 있는(주역학회 회장) 비종교수라는 점에서 전적으로 다른 경우라 할 것이다.

문제는 과연 이러한 주장이 폐쇄적인 자기문화 중심주의에 머물지 않고 합리성의 기준이 전제되는 개방적 풍토에서도 설득력을 갖는 사상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이다. 이는 보다 많은 진지한 토론을 거쳐야야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해석학적으로 철학함이 과연 이정복 교수의 말처럼 ‘삶에의 경의와 생명의 신비를 직접 만나는 철학’으로 자리잡아 나갈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 하겠다. 그 역할을 한국해석학회가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을 지 아니면 다른 그룹이 떠맡게 될지도 아직은 미지수이지만, 어떻게 그에 대한 현실적 요구는 절실한 것임에 틀림없다.

「현대철학과 해석 1」(해석학연구회 엮음)
「해석학은 무엇인가」(한국해석학회 엮음)
지평문화사/각 A5신/각 400, 418면/각 6500, 9000원